



‘불서 보시’ 불심 쌓는 주춧돌이죠

군·경·재소자에게 법륜사 기탁 불서 700여권 전달



서울 시간동 법륜사에서 기증한 나눔의 책이 8월11일 6포병여단 범음사, 공군교육사령부 성불사, 중앙경찰학교 적보사, 원주교도소 법당에 1차로 전달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고맙습니다. 군인과 경찰의 가슴에 불심 머금은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서울 시간동 법륜사(주지 보경)가 군부대 장병과 교도소 재소자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기탁한 ‘나눔의 불서’가 군과 경찰, 교도소 재소자 불자들에게 8월 11일 전달됐다. 1차로 나누어진 불서는 1천여권 가운데 7백여권으로 육군 제6포병여단 군법당인 범음사, 공군교육사령부 성불사, 중앙경찰학교 적보사, 원주교도소 법당으로 향했다.

이 가운데 원주교도소 법당은 재소자 박봉주 씨가 불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법륜사에 보내와 선정됐다. 법륜사 주지 보경 스님은 “불서를 보내는 일이 큰 일은 아니

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키우는 불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 수령을 위해 <현대불교>를 방문한 6포병여단 군중병 안현상 상병은 “작은 것도 함께 나누겠다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최전방의 군법당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이 책 한권한권에 담긴 나눔의 불심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경찰학교 불자회 김태현 씨도 “불서 보시와 같은 외부에서 가져주는 관심은 경찰 불자들에게 차곡차곡 불심을 쌓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책 전달된 법당은 이곳

육군 제6포병여단 범음사=23개 대대로 구성된 6포병여단의 군법당인 범음사에는 비구니 호택 스님이 상주하며 장병불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주는 도움의 손길이 거의 없어 군법당 운영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법회 참석 인원은 120여명 가량. 호택 스님은 “불자들이 불교계의 관심은 군불자들의 신심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군법당 후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031)832-0912

공군 교육사령부 성불사=공군의 장교, 하사관, 사병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군 교육사령부는 연 1만명의 교육생이 거쳐가는 김복같은 부대다. 이곳의 군법당인 기지법당에서 군속 동광 스님의 지도로 법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생의 숫자에 따라 참석인원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5백여명의 불자들이 법당을 찾아 법회와 수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광 스님은 “보내준 책이 불자 장병들의 신심을 키우고 양식을 쌓는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55)759-5505

중앙경찰학교 적보사=직업경찰인 순경과 의무경찰인 전·의경이 거치는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적보사는 이곳의 경찰들의 수행활동을 위해 37평 규모로 99년 개원한 법당이다. 상주하는 스님이나 법사가 없으며, 중앙경찰학교 불자회 중심으로 법회가 운영되고 있다. 법회는 매주 수요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불자회 김태현 총무는 “국민들과 직접 부딪힐 기회가 많은 경찰에 대한 포교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김태현 011-9335-9278

나눔의 청금

미국 하와이 장지원 보살-200달러 (21만원)
최재순 보살-3만원
총 24만원
총 누적금액 18,325,310원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 후원 약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일동 박성주
충남 아산시 동곡사 명정 스님

나눔의 한결증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스님이 한결증 27개를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써달라며 보내주셨습니다.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연월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량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시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아버지’ 산디마 스님에게 도움을!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컴퓨터 제공하고 불교를 알리는 미얀마 출신 산디마 스님이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998년 5월 한국에 온 산디마 스님은 순천 송광사와 제주 남국선원에서 여러 차례 안거에 드는 등 한국불교를 몸으로 체험한 장본인. 2000년에는 서울 독립문 근처에 선원을 개원, 한국인 불자들에게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울 암사동을 거쳐 의정부 모 사찰 내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최근 11월까지 선원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뇌에 빠졌다. 다른 곳에 자리잡을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

산디마 스님을 도와온 이석순 씨는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한때 외국에서 똑같이 외국인노동자 취급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포교활동을 벌여온 스님과 외국인노동자 불자들을 위해 한국불자들이 작은 정성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 씨는 “1천여만원 정도면 외진곳에 작은 법당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순 011-398-5597 후원계좌 : 조흥은행 983-01-003852 예금주 산디마

박봉영 기자

골수기증으로 생명 살립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무더위 잊고 10일 골수기증 캠페인

“3cc 한혈로 생명나눔을 시작하세요.”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등줄기 사이로 땀이 흘러내리는 8월 10일 오후 종로타워 앞. 한 칸에 마련된 천막에서 사람들이 기증 희망신청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채혈을 기다리고 있다. 3cc에 불과한 적은 양이지만,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진지하기만 하다.

“그나마 건강할 몸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하게 됐다”는 변형민(21) 씨는 생명나눔 실천본부(총재 법장, 이하 실천본부)가 올해 연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답답하게 밝힌다.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변 씨의 친구들 역시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하게 됐다”며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후 시신, 각막, 뇌사시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기증을 약속한 자원봉사자 이금강(52) 보살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골수기증을 신청한 변형민 씨가 밝은 표정으로 채혈하고 있다.

과 함께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따뜻한 미소로 기증희망자들을 맞이했다.

5월 19일부터 시작된 열두 번째를 맞이한 이날 거리 캠페인에서 생명나눔본부 측은 올해에만 2천5백명 이상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가톨릭, 개신교 등 이웃종교와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기우어 주는 정려 불사가 될 것입니다.

-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교사찰 단계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변씩 동참자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계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 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재매련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한결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나 소정하고 있는 한결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